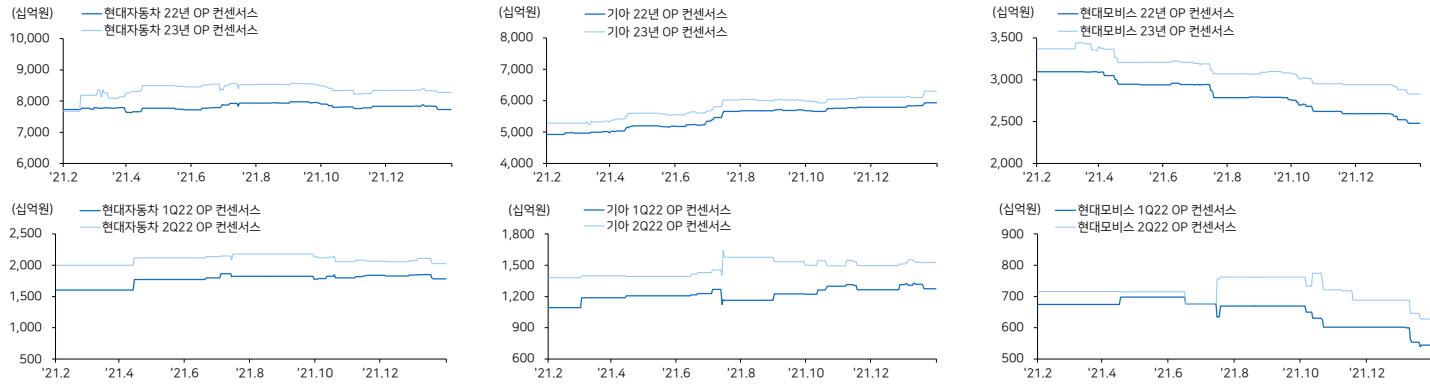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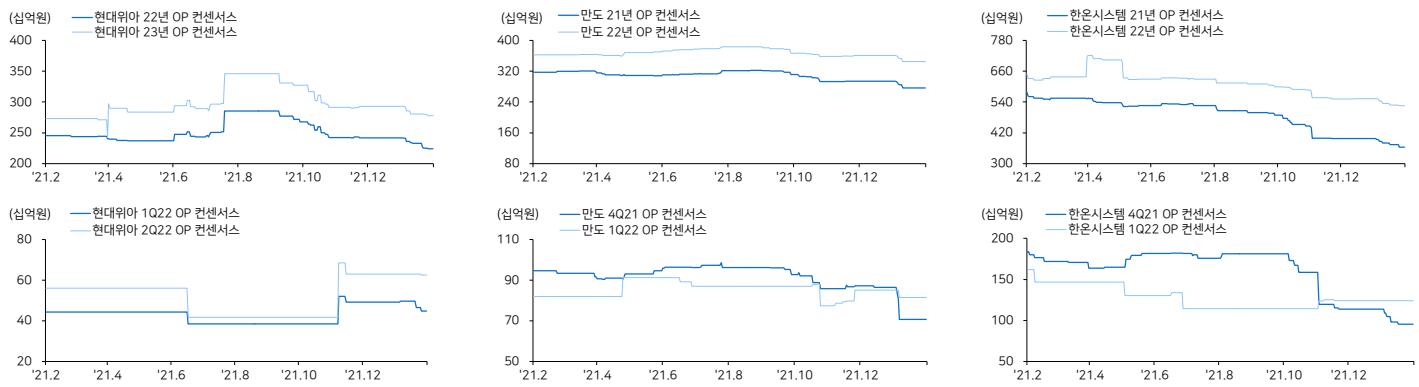


##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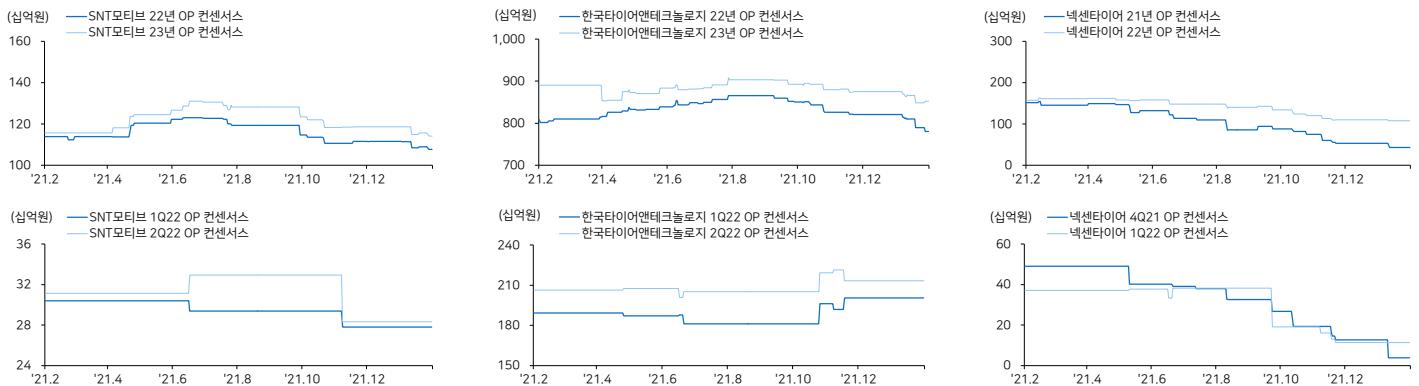
###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 현대차, 반도체난에 임원 美 급파...업계 "3분기 해결 불투명" (머니투데이)

이번 주 초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상무급 임원을 급파함. 피닉스는 미국의 반도체기업들 다수가 자리잡은 도시로, 현대차그룹은 반도체 공급난으로 부품 조달에 차질을 빚자 물량 확보를 위해 직접 임원급을 급파한 것으로 예상됨.  
<https://bit.ly/3gi0UBS>

#### 현대차·기아 등 중고차 시장 진출한다...점유율 얼마나 될까 (한국경제)

현대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도 시장 점유율이 최대 12.9%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2026년 중고차 시장 예상 규모인 210만대 중 최대 27만대 대만 완성차 5개사를 통해 거래될 것이라는 관측.  
<https://bit.ly/3GOkdSO>

#### 美 1월 CPI 전년比 7.5% ↑...1982년 2월 이후 최고 (연합뉴스)

미국 1월 CPI가 yoy 6.0% 올라 1982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함. 중고차 가격은 MoM +4.2%, YoY 40.5% 상승했으며, 신차 가격은 MoM 0%, YoY 12.2% 상승함.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 가격 상승세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https://bit.ly/3HKnFhl>

#### Biden announces \$5 billion over 5 years for a nationwide EV charging network (electrek)

미국 교통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NEV(국제 전기차 인프라) 프로그램에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예산으로 50억 달러가 배정되었다고 발표함. 향후 5년에 걸쳐 EV 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며, 지멘스와 Dunamis 등의 업체가 생산할 것으로 알려짐.  
<https://bit.ly/3oG1FnF>

#### 온라인 판매로 일어나는데...현대차, 일본 재진출 속사정 (이코노미스트)

자동차 전문가들은 현대차 일본 진출에 대해 "현대차가 온라인 판매망 구축이 아닌 온라인을 택한 만큼, 일본 시장을 본격 공략하기보단 전기·수소자동차의 가능성을 기능하는 테스트 성격"이란 평가를 내놓음.  
<https://bit.ly/3sA1fsT>

#### 3년 전 '벤츠' 꺾었던 태양광전기차 올여름 나온다...가격 보니 '억소리' (매일경제)

1회 충전 시 최대 725km를 주행할 수 있는 태양광전기차 '라이트아이01'이 올여름 출시될 예정. 배터리 용량은 약 60kWh. 차량의 천장과 후드를 덮는 태양광 패널 면적은 총 5제곱미터로 하루 최대 70km주행 가능한 전기를 발생시킴.  
<https://bit.ly/3BcLnjY>

#### GM, Toyota, Ford cut production following Canadian trucking protests (Reuters)

토요타, GM, 포드, 스텔라티스는 미국-캐나다 국경을 넘는 운전자에 대한 격리/예방접종을 요구하는 COVID 관련 정책에 반대하는 트럭 운전사들의 시위로 인한 부수 부족 현상으로 일부 공장에서 생산을 중단/축소 운영한다고 밝힘.  
<https://reut.rs/33g5CRu>

#### Tesla loses Roadster chief engineer behind several important vehicle programs to Ford (electrek)

포드는 Tesla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Roadster 수석 엔지니어 Alan Clarke를 1월 영입한 것으로 알려짐. 그는 포드의 Advanced EV 개발그룹에서 일할 예정이며, 테슬라-애플-포드 순으로 이직한 Doug Field의 팀에 합류할 것.  
<https://bit.ly/3GJrVwx>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